

## 제주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

강정희\*\*

### 국문 요약

이 글은 2010년 12월 유네스코가 제주방언이 세계 언어들 가운데 소멸 위기에 놓인 소수 언어들 중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지정, 등록된 현실에서 제주방언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언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논의의 핵심은 방언을 왜 연구해야만 하고, 보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제주방언 공동체 구성원들의 제주방언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언어는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체이다. 문화는 혈연체로 이루어진 동일 언어 집단의 역사적으로 관습화된 습관들의 집합이다. 이 문화 중 구술로 전승되는 전통문화의 기본 수단은 해당 지역의 언어이다. 지역 언어의 소멸은 곧 문화의 소멸로 이어지며, 제주방언과 제주 전통문화의 소멸은 곧 제주방언 화자들의 정신세계의 소멸을 의미한다. 방언의 소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화자들이 자신이 쓰는 말을 후손에게 대물림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방언은 표준어에 비하여 열등한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태학은 이와 같은 존재 간의 불평등의식을 배격한다. 생태학의 기본

---

\* 이 글은 2011. 5. 22. 제주학회 전국 학술대회에서 특별기획으로 발표한 「제주 방언 연구의 가치와 현황」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심의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개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 생명의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연과 생물체들을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체계로서 상호작용 관계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체들은 '존재의 관계망'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생태계는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태학의 이러한 기본 개념이 곧 생태의식이다.

1970년대에 출발한 생태(주의)언어학은 바로 이러한 생태의식을 언어학에 적용한 신생학문이다. 생태언어학은 언어를 생물체로 인식한다. 언어와 인간, 자연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으로 인식한다. 생물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개체군의 감소, 멸종, 경쟁 등과 같은 현상이 언어 생태계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본다. 소수 힘없는 지역 언어의 소멸도 이에 적용된다. 힘 있는 외래종이 방언 생태계로 들어오면 외래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 시기에 두 언어의 접촉으로 인한 토종, 변종, 외래종이 공존하게 된다. 이 적응 시기가 지나면 지역 방언 생태계의 변화가 완성된다. 주로 외래종의 승리로 끝난다.

지역방언 생태지위는 축소되고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제주방언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 단계로 온 데에는 제주방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앞으로 이 방언을 연구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주방언 공동체 구성원들은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언어들은 평등하다는 생태의식으로 의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방언 보전 방법은 민·관·학 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조사, 연구, 발전 계획수립, 방언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주제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 언어의 소멸, 생명 평등권, 관계망, 순환, 토종, 변종, 외래종**

## I. 들어가며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가 유네스코 자연환경 보호 제도 분야에서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세계적인 브랜드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2002년의 ‘생물권 보전 지역 승인’, 2007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의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낸 것은 제주 역사상 획기적인 성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게다가 2011년 5월 현재 스위스 뉴 세븐 원더스(New7Wonders) 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최종후보지에도 올라있다. 이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비록 유네스코와는 무관한 단체라고 하지만, 세계인들에게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의 강력한 경쟁지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프로젝트임에 틀림이 없다.

제주도가 유네스코로부터 3개 자연 환경 분야에서 인증 및 등재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 유지되었다는 것은 곧 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생태계’가 잘 보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의 이상과 같은 분야의 평가는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연 환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모두 제주도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에 충분한 평가이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2010년 10월 제주도가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고 곧이어 12월에 유네스코는 다시 제주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소멸 위기의 언어 레드북 프로젝트’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 등록했다.<sup>1)</sup> 이 단계는

---

1) 2007년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제주방언을 유네스코 지정

언어병리학에서 말하는 사망 바로 전단계인 '빈사'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주방언이 전 세계 언어 6천 여 개 개체 중에서 죽음 직전에 와있는 소수의 암 말기 언어라는 의미인 것이다.

유네스코가 제주방언을 죽음 직전의 언어로 등록한 것은 결코 분명히 제주 사람들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언어를 자연경관처럼 잘 보전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 언어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제주방언 화자들이 공통으로 책임감을 느껴야한다는 것이다. 제주방언을 평생 연구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본 필자도 그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할 것이다. 죽음으로 치닫는 제주방언의 소멸 속도에 우려만 해왔지, 어떤 회생, 관리방법을 실천할 수 없었던 점을 연구자의 한계로만 치부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제주방언의 회생, 보전의 경고장을 받은 셈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곧 우리 제주도 사람들과 연구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시기다. 생태학의 원리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쓰지 않는 말은 소멸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다. 제주방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현재가 곧 제주방언을 회생, 활성화해야할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고는 제주방언을 왜 보전해야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인가, 즉 그 중요성 대해서 생태주의 언어학의 이론 안에서 살펴보고 빈사 상태에 놓인 이 방언의 보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기로 한다.

---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재된 것은 필자 개인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

## II. 제주방언과 방언 문화의 현실

문화는 의식주 등의 물질적 문화뿐 아니라, 언어 사용 집단의 우주관 세계관, 사고방식과 같은 정신세계를 포괄한다. 언어는 이와 같은 '문화'의 두 측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첫째는 어떤 사회가 구축한 문화는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에 언어를 잘 살펴보면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둘째, 언어 속에는 언어 집단의 과거, 현재의 정신세계가 반영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정신세계의 현재형이다.

오래전부터 언어학자와 철학자들은 '언어와 인간, 언어와 사고' 그리고 '인간과 사고'라는 함수관계에 대해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의 외적 표현 수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존재의 집'이라고 해왔다. 이는 어떤 사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인간에게 만약 언어가 없었다면 존재 자체를 의식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언어'='인간 존재의 집'이라는 등식에서 우리가 '집' 속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망라하는 '문화'다. 그러므로 방언문화가 잘 보전된다는 것은 해당 방언 사회의 경험세계와 정신세계의 전통성 및 정체성의 보전을 의미한다.

한국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제주방언의 급격한 소멸을 가져왔다고 하나, 국내 다른 지역 방언의 소멸 단계도 이에 못지않다.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남지방의 무형문화재인 '판소리'와 강릉지방의 '단오제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두 문화제가 '자연 환경'과 다른 점은 그 대상이 '소리, 구술' 즉 방언, 그리고 '행위'로 이루어져있는 '방언 문화'라는 점이다.

지역의 전통 문화는 서민층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무

형적인 자산이다. 전통 문화 중에서도 구전으로 전승되는 구비 문화들 -신앙 의식(哭), 제례 의식, 무가, 민요, 설화, 속담 등에서는 지역 방언을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판소리와 강릉 단오제 속에는 호남과 강릉 지역 사람들의 과거, 현재의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과 같은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 지역 방언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반면에 제주방언은 2010년 12월에 유네스코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언어’로 분류 등록하는 데에 이르렀다. 즉, 세계적인 ‘관리 대상’의 언어로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는 2011년 1월의 각 언론의 보도 분위기는 유네스코에 제주방언이 ‘등재’되었다는 ‘등재’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미 인정받은 자연환경 분야의 평가와 다른 지역 방언의 경우와 전혀 다른 평가라는 사실을 외면하려한 것은 아니었을까?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방언의 소멸 단계로 측정할 경우 제주방언과 별 다를 바 없는 강릉과 호남의 방언으로 이루어진 ‘무형문화재’들이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해당 지역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전통무형문화재를 건강하게 보존한 것이다. 이 근저에는 이들의 지역 방언에 대한 방언 공동체 구성원들의 방언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제주방언이 국어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국내 학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앞의 두 지역처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제주방언문화 유산으로서 판소리나 강릉 단오제를 능가할 만한 민속 문화 형태가 보존되지를 못했고, 설혹 있다하더라도 원형 보존도 그리 잘 되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에는 다른 지방이 갖지 못하고 있는 제주 특유의 전통 민속 문화로서 ‘영등굿’이라든가 ‘노동요’로서 ‘해녀가’ 등이 있다. 이 문화재들도 판소리와 강릉 단오제처럼 제주 지역 ‘방언’을 바탕으로 하는 ‘소리’와 ‘행위’의 문화다.

그런데 이 문화재들은 제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이미 오래 전에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거나 변질되어 버렸다. 영등굿은 마을마다 그 규모가 작아지거나 지방 문화제 등의 행사에서 공연하기 위한 공연성이 많아지는 변이형으로 바뀌어져가고 있으며, 해녀 노래는 해녀 수의 감소로 인해서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점이 요즈음 우리 제주방언 무형문화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밑에는 제주방언에 대한 제주방언 토착화자들의 제주방언에 대한 자긍심의 결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방언의 보전이라는 명제는 곧 지역 방언으로 이루어진 전통문화재의 보전과 함께할 때 그 생명력이 강해질 수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였듯이 제주방언의 현실은 ‘아주 심각하게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주체들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제주 사회, 환경 변화라는 외적인 요인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이 방언의 화자들인 ‘제주 사람들’이다. 이제 제주방언 공동체 구성원들은 제주방언의 보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방언사용의 주체자인 제주방언 화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의식전환이야말로 생태학의 기본 개념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생명체는 물론, 언어들은 다 평등하다는 생태학적 사고방식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방언 유전자를 후대에 전승하지 못했다는 윤리적 반성과 책임감이다.

### III. 제주방언 보전의 생태학적 접근

#### 1. 생태학과 생태주의 언어학의 기본 개념

##### 1) 생태학의 출발과 생태의식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생태학적’, ‘생태계’, ‘생태지위’ 등의 낱말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인 생물학에서 발전한 ‘생태학(Ecology)’의 핵심 용어이자 기본 개념이다.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1869년 독일의 동물학자이자 철학자인 Ernst Haeckel이 그의 동물학 강의에서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 힘입어 발전한 초기의 생태학은 개체군의 변동은 포식자와 피포식자와의 생존경쟁,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서식지의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는 학문이다.

다윈의 진화론의 주요 관심은 서로 다른 종들의 개체군이 ‘먹이 사슬’ 안에서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상위 집단인 포식자의 개체 수 증감은 하위 집단의 피포식자의 증감과 결부되는 현상을 수학적인 공식화하는 것이다. 또한 개체군의 진화는 유전자 형질의 전승에 의해서 지속된다. 그러므로 유전자 형질이 전승되지 않는 개체군들은 진화의 종말을 맞게 되며, 전승과정에서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변종이 발생하는 계통 발생적인 사고의 연구였다.

그러나 헤켈의 생태학에서는 개체군들의 변동 -감소, 소멸, 천이 현상들이 반드시 먹이 사슬 체계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진화는 개체 내부, 외부적인 요인이 서로 맞물려 진행된다는 사고체계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 생태학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자연 환경과 상호 협력 관계,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는 '개체 간의 그물망'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생명체와 전혀 관계없는 물질인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이 동식물의 세포에 필요한 핵심 물질을 제공하며 생명에 적절한 대기 온도를 유지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생태학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생태학자들은 자연계 내에서는 부분과 전체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순환'하는 상호작용 관계로 개념화한다. 부분과 전체 간의 순환과 상호작용이 바로 '생태의식'의 시발점이다. 생태의식은 생태계의 부분(유기물, 무기물 통칭)은 결코 전체(우주)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의 '개체 간의 그물망'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합일, 통합, 조화' 사상이다.

따라서 생태학의 연구 대상은 공기는 물론 생명의 순환과 관련되는 모든 것으로 확충된다. 심지어 무생물인 석회암이 생태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돌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식물의 세포에 핵심물질을 생성시키고 대기 온도를 조절하는 원료이기 때문이다. 생명체와 관련되는 것은 모두 생태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생태학자들의 새로운 사고인 생태의식에서는 종의 '다양성'이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 생태계의 개체군 간의 균형과 순환 활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생명체와 주위 자연 환경 사이에 상호 작용은 순환을 통하여 서로 균형을 이루며 지속 발전할 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개체군의 증감과 소멸은 즉 서식지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태학적 사고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 확

대된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각각의 생태적 지위에 따라 특정한 서식지 내에서 살아간다. 특정 생태계는 단일 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건강한 생태계는 여러 종의 생태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생태계는 자연히 개체군들이 생활하는 장소인 서식지와 이 안에서 다른 종의 개체들과 어떻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생태지위가 형성된다.

이 생태지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서식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생태지위가 높은 것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이 있다. 먹이 사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식-피포식의 관계도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진다. 만일 포식자가 포식 대상인 개체들을 모조리 먹어버린다면 피포식자의 생태지위는 없어지고 따라서 그 생태계는 불안정해진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생태계 안에서 생태적 지위가 다른 종과는 다투지 않고 생활한다. 동물과 식물이 경쟁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원리에서이다. 생태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이를테면 피포식자가 동일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한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예로서 도토리나무를 주식으로 다람쥐와 청솔모의 경쟁이 한 예이다. 현재 자연 숲 생태계에서 다람쥐와 청솔모의 경쟁은 청솔모의 우세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숲 생태계에서 다람쥐의 생태지위는 위축되어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청솔모의 생태지위는 확대되어 다람쥐의 생태지위를 매우게 된다. 다람쥐의 멸종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그밖에 인간의 역사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민족과 민족, 국가 간의 전쟁은 생태학적으로 동일종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 종은 지구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가운데에서 생태지

위가 가장 넓고 확고한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포식 대상과 서식지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식지와 먹이를 확보하기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어있다.

생태계 안에서는 주위 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개체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인간은 생물생태계 안에서 적응 범위가 가장 넓은 종이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주위의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활용하면서 다른 종에 비해서 생태지위를 확대해 왔다. 인간의 종족 증식의 본능적인 욕구는 과일 생산과 과소비를 낳게 되었고 이러한 순환의 지속은 주위 환경을 활용의 수준에서 벗어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게까지 이르렀다.

오늘날 현대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따라 이루어진 이른바 '재창조를 위한 파괴'의 결과로 인간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생태지위의 확충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생태지위의 축소와 불안정이라는 인간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왔다. 세계 곳곳에서 생태계의 파괴로 인하여 초래된 균형과 순환의 고리가 끊기게 되자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는 지구 생태계의 불안정성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과 개간의 상대로 한 이분법적인 의식의 결과라 하겠다. 생태학의 사고에서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어 온 생태계, 환경 파괴는 인간중심적이라는 측면에서 반 생태적인 의식의 소산이다.

예를 들면 인간들이 동식물의 서식지인 숲과 열대우림을 벌목하는 일, 산을 깎아서 주택 단지화 하는 행위는 주변 산과 숲에 분포된 생물체의 멸종을 앞당겼다. 또한 주택 재료로 쓰이는 특정 수종으로의 식목 계획도 생물 다양성 증대와는 반대 방향의 인간 위주의 정책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수목의 다양할 때 그 안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이 먹이 사슬 원칙에 따라 증식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구 역사상 이와 같이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 곳곳에서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다양한 동식물 종들이 멸종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국제 자연 보호 연맹(IUCN)이 작성한 멸종 위기 생물종 목록 일명 '레드 리스트'의 멸종 위기 등급 중 취약종, 위기종에 속하는 생물은 무려 1만 2,259종에 이른다(김성희, 2006: 43)고 한다. 그 주요 원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에 의한 동식물들의 생활공간의 파괴와 무자비한 사냥과 독극물 살포 행위이다. 동물의 경우, 아시아 지역-특히 우리나라 백두산에 분포되어 있는 호랑이나 지리산 반달곰도 이미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다. 국내에서 식량 생산 증대라는 국가 정책으로 논과 밭에 살충제를 살포하여 천적들의 연결망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다.

그러므로 생태계 보호는 과학 기술의 남용으로 인류가 그동안 자연에 대해 자행해 온 심각한 파괴 행위에 대한 반성은 이 새로운 윤리 체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환경파괴의 현실 속에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식의 전환과 심리적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윤리체계 형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식과 일련의 움직임과 세계관이 생태의식이다. 즉 인간이 자연으로의 회기이다.

생태학의 가장 핵심인 '생태의식'은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더불어 함께'라는 윤리 체계다.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각 개체군들을 투쟁과 정복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서로의 서식지 안에서 동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식, 즉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존재 의의, 생명 평등주의가 생태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의식

은 상호 독립적인 공동체, 통합 체계, 조직 부분간의 강력한 연결을 암시하는 개념이다.

생태학의 연구 대상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이 급속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몇몇 다른 크고 힘센 것의 억압으로 작고 힘없는 많은 종들이 정체되고 수축되는 위기의 생태계이다. 작고 힘없는 토종들이 그들의 서식지에 들어온 외래종과의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결과로 소멸되는 것과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인간에 의하거나 자연 재앙으로 인하여 멸종에 이르는 힘없는 생명체들을 살피고 보존하는 일이 생태학의 기본 주제가 된다.

## 2) 생태주의 언어학의 기본 개념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자연 과학적 연구 분야의 '생태의식'이라는 새로운 사고는 곧 자연 과학을 넘어 인문학의 중심인 철학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반세기 전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생태학, 사회생태학, 정치생태학, 경제생태학, 교육생태학, 도시생태학, 문화, 인간생태학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학문들의 기본 원리는 모두 생태학의 기본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생태학의 개념을 언어에 적용한 것은 1970년 독일의 언어학자 Einar Haugan의 '언어의 생태학'이라는 제목의 강의 내용을 2년 후 자신의 논문집에 이 이름을 붙인 데에서 비롯되었다(박육현, 1999: 12-13). Einar Haugan는 생물체들의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균형, 생존경쟁이 언어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Einar Haugan이 말하는 '언어'는 서로 다른 언어일 수도 있고 이중 언어 사용자의 경우 인식 속에서 두 언어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거나 경

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박육현, 1999: 15). 이러한 사고는 언어 안에서 생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체들 간의 간섭, 간섭으로 인한 변이형의 출현, 생태지위의 확산과 축소, 개체군집 간의 투쟁, 갈등 현상이 언어 변화 과정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생태학의 시각은 점차 언어학자들의 연구 방법과 대상의 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생태주의 언어학'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줄여서 '생태언어학(Ecolinguistics)'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sup>2)</sup>

생태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로 인식한다. 그도 그러할 것이 언어 사용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의 삶과 죽음이 곧 인간의 삶과 죽음 그 자체인 것이다. 언어 변화, 언어 접촉, 언어 충돌, 언어 존속과 소멸 등의 용어가 모두 생태학적인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생태언어학은 '언어=인간=자연'이라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생태 언어학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와 문화, 사회,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환경을 포함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지역, 국가를 포함한다.

생태언어학은 이 외에도 지역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 소수 언어의

---

2) 현재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언어생태학'이라고 한다면 생태학의 한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주의 사고, 개념으로 언어 변화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언어학의 한 연구방법으로서 '생태(주의)언어학'을 택하고 있다. 이 선택은 인접 학문 분야인 문학에서 다루는 '생태시, 생태소설, 생태비평'과도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서 '생태(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무조건 자연과 좀 더 가까이한다라고 하여 생태학습, 생태계 복원, 보호 등 외부 환경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의 오염, 언어폭력, 비속어 사용이 극에 달해 있는 국어생활에 대한 생태주의 의식은 아직도 전무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의식의 전환도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소멸, 언어의 오염, 언어폭력, 언어정책, 이중 언어능력, 언어 습득 등 언어를 둘러싼 주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이 중에서도 ‘언어 존속과 소멸’은 생태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생태학에서 종의 사멸과 생물의 다양함이 훼손되어가는 과정을 소수민족과 언어의 사멸을 같은 층위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생태언어학자들은 오늘날 세계 언어 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 영어의 세계어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언어의 단일화는 곧 사고의 단일화로 이어져 문화의 다양성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표준어의 억압으로 생태지위가 축소되거나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방언들, 이미 소멸해버린 소수민족들의 언어들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가 생태언어학의 중심 주제이다.

## 2. 소멸 위기의 제주방언 보전의 당위성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환경 파괴와 외부 세계로부터의 강력한 존재의 공격에 의한 결과로 일어난다. 특히 생태계 안의 강력한 외래종의 침략으로 인한 변화는 그 속도와 개체의 멸종으로 이어진다. 토종과 외래종 간의 강력한 충돌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대부분 외래종의 승리로 끝난다. 예를 들면 1980년대 늪 생태계의 황소개구리의 등장으로 토종개구리의 개체수의 감소와 멸종 위기로 몰아왔고, 숲 생태계에서는 청솔매가 토종 다람쥐를 멸종 위기의 개체로서 그 생태지위가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언어 생태계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앞의 소절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물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고 생존경쟁을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서로의 존재가 의존적인 것과 같이 언어들 사이에도 서로 균형이

유지되거나 또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즉, 일정한 언어생태계(언어 공동체)에 외부에서 제 2의 우세어가 들어오면 토착화자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저항과 타협, 그리고 항복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관찰되는 것이 언어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형의 언어 변화의 모습이다.

토착 언어의 보존을 토착화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우세어에 저항해서 이겨낸 결과라면 토착 언어의 소멸은 주로 타협과 항복이라는 약세적인 태도의 결과이다. 타협과 항복은 토착화자들의 언어공동체에 대한 결속력, 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속도와 수준으로 나타난다. 제주방언의 급속한 변화,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데에는 제주방언 화자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래종 언어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거나 타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제주방언 생태계 안에서 관찰될 수 있는 외래종인 우세어와의 타협형인 변종이 우세어인 표준어와 함께 생태지위가 확산되고 있다.

다음의 표에 보이는 예는 제주 토종 방언과 외래종인 표준어가 서로 접촉한 결과 뒤섞임 현상을 보이는 접촉방언형들이다(강정희, 2005: 44-45 참조).

- 가. 아지다.(앗다 × 가지다)
- 나. 고추룩 (같이>같이 × 추룩)
- 다. 있수다, 없수다.(있-/없- × - 수다)
- 라. 먹었수다.(먹었- ×-수다)
- 마. 가시쿠가?(가 -시-쿠가)ㄹ르니까,
- 바. 말ㅎ난(ㄹ르- ×- 니까, 말 × ㅎ난)
- 사. 해버런(해버리-× -언)



위의 예들 중에서 ‘바~사’의 접속어미 토종과 외래종의 접촉과정은 바. ‘말~난’은 용언 어간이 외래종에 토종 접속 어미 ‘-~난’이 결합된 것이며, ‘ㄱ르- x- 니까’는 그 반대이다. 사.의 ‘해부런’은 어간의 역사적 과정형인 ‘~여불->해여불->해불-’에 ‘불다’에 대응하는 외래종인 ‘버리다’가 2차로 결합한 ‘해버리-’에 토종형 어미 ‘-안’이 결합된 접촉형이다.

이 방언의 ‘데껴불다’와 표준어의 ‘던져버리다, 내버리다, 버려버리다’와 접촉 결과 출현하는 변종의 유형은 제주방언 본동사에 표준어의 보조동사 ‘버리다’가 결합하는 ‘데껴버리다’, 표준어의 본동사인 ‘던져-, 내(-어)-, 버려-’에 제주방언의 토착형인 ‘불다’가 결합한 ‘던져불다, 내불다, 버려불다’ 4개로 출현이 되어 토착형과 표준어형 4개와 결합한 어형이 8개로 개체수가 늘어난다.

제주방언 생태계에서 복합동사 토종인 ‘데껴불다’는 혼성형이라는 형질이 변형된 접촉형들로 그 생태지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10대 남자 35명, 10대 여자 32명, 20대 남자 27명, 20대 여자 72명을 대상으로 발화 선호도-생태지수를 조사한 결과이다(강정희, 2010: 8).

<표 1> ‘데껴불다’ 혼성형들의 발화선호도

구 분	1순위 발화선호도 순위	1+2순위 발화선호도 순위
10대 (남) (35명)	① 데껴불다(12/35, 34%) ② 데껴버리다(6/35, 17.1%) ③ 던져불다/버려불다/ 버려버리다 (각 4/35, 11.4%)	① 데껴불다/데껴버리다 (각 14/67, 20.9%) ② 던져버리다/버려불다 (각 9/67, 13.4%) ③ 던져불다(7/67, 10.4%) 응답수: 67명
10대 (여) (32명)	① 데껴버리다/던져버리다 (각7/32, 21.9%) ② 버려버리다(6/32, 18.8%) ③ 버려불다(3/32, 9.3%)	① 던져버리다(15/60, 22.4%) ② 버려불다(11/60, 16.4%) ③ 데껴불다/데껴버리다 (각8/60, 13.3%) 응답수: 60명

구 분	1순위 발화선호도 순위	1+2순위 발화선호도 순위
20대 (남) (27명)	① 데껴불다(17/24, 63%) ② 내불다(3/27, 11.1%) ③ 데껴버리다(2/27, 7.4%)	① 데껴불다(22/54, 40.7%) ② 데껴버리다(11/54, 20.4%) ③ 내불다(7/54, 13%) 응답수: 54명
20대 (여) (72명)	① 데껴불다(27/72, 37.5%) ② 던져버리다(10/72, 13.9%) ③ 버려불다/버려버리다 (각 8/72, 11.1%)	① 데껴불다(34/140, 24.3%) ② 던져불다(25/140, 17.9%) ③ 던져버리다(19/140, 13.6%) 응답수: 140명

또한 언어의 소멸의 인구학적 요인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의 감소와 관계가 있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출생율의 저하와 청소년 집단과 젊은 집단의 육지로의 유학 및 취업으로 인한 이주로 인하여 최근 10 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다.

제주도 100여 만 인구가 모두 방언화자라고 한다면 방언 소멸의 시기는 훨씬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인구'란 토착 방언을 구사하는 노령층 이나 전통문화와 구비 전승 문화의 보유 인구수를 말한다.

'신바치'와 '갓바치', '심방', '줍녀', '태우리' 등 제주의 기층 문화를 이루는 각 분야의 토종 방언 구사 가능 인구의 감소는 이 분야의 토착 방언의 감소를 의미하고 토착 방언을 구사하는 노령층의 감소는 생활어의 방언의 소멸을 수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수의 감소와 멸종에 따른 개체집단의 특성의 소멸에 대응되는 언어 생태계의 모습이다.

이번 유네스코에서 제주방언을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 등록한 기준은 바로 이와 같은 생태학적 기준에 의한 것이다.

- ① 세대 간의 언어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② 화자의 절대수가 감소하였다. -토착방언 화자 인구수 감소

- ③ 전체 인구 대비 해당 언어 구사자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70대 이상 고령자 세대에 국한됨
- ④ 언어 사용 분야에 변화가 없다.
- ⑤ 새로운 영역, 매체에서의 반응 -큰 방언 차로 의사소통 불능, 매체 언어로 활용 불가능
- ⑥ 언어 교육과 읽고 쓰기 자료 사용 여부 -영어 교육 우선 풍조에 밀림
- ⑦ 해당 언어에 대한 공식적 지위 부여와 사용을 포함한 정부와 해당 기관의 태도와 정책 -지자체 내에서 공식 언어(이중 언어) 불인정
- ⑧ 해당 언어에 대한 그 지역 사회 구성원의 태도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방언 정체성 결여
- ⑨ 해당 언어 자료의 양과 질 -자료 수집 및 연구자 빈곤

이상의 9개 기준에 제주방언이 모두 미달되었다는 현실이 제주방언 공동체 안에서 자각, 측정된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라는 세계적인 기관에 의해 평가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제주방언의 소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주방언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 외에 앞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제주사회 변화와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멸종해버린 토종방언 개체 수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예를 들면 주거 형태의 변화, 즉, 기와집과 아파트의 등장으로 초가집의 생태지위가 축소되어버린 지 오래다. 사물의 소멸은 이와 관련된 방언 개체군들의 소멸을 가져온다. 초가집과 관련된 어휘들인 '상방, 무똥, 굴묵, 고팡, 정지, 통시' 등은 민속촌과 사전에만

남아있다. 한라산에 자생하던 '시르미' 열매도 멸종 위기에 놓여서 민요 '오돌또기' 가사에서나 찾을 수 있다. 동식물 서식지의 파괴는 많은 동식물 종의 멸종과 아울러 그 명칭도 소멸을 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제주방언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법과 어휘 수의 감소 및 소멸의 양과 속도는 매우 많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현실은 곧 제주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정신, 사고-언어-환경, 사회'의 관계 그물망의 상당 부분이 끊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는 지역 사회의 지식 체계와 생활양식과 연계되어 있다. 영국의 생태언어학자 다니엘 네틀과 수잔로메인은 그들의 공저인 '사라져가는 목소리'(김정화, 2006: 276-89)에서 '왜 언어를 보전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생태학의 사고체계로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개발과 생물 다양성, 언어적 다양성 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토착민들의 다양한 언어 자원을 파괴하는 것이다.

천연자원을 보존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곧 그 생태계와 관련된 토착민들의 언어를 보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소수민족의 언어 보전에 대하여 "인간이 존재할 권리,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실행하고 재생산할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김정화, 2006: 89).

개인 언어는 언어 공동체 문화 형성의 기본 상징체이다. 전통문화는 동일 혈연체로 이루어진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역사적으로 관

---

3) 이상과 같은 제주방언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생태지수를 조사한 내용은 2008년 제주대 국어문화원이 수행하고 국립국어원의 『제주지역 생태지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습적으로 습관화 되어 온 일종의 의사소통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는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죽음은 곧 그 공동체의 정신세계가 사라지는 것이고, 전통문화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언어의 소멸 요인으로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한다(권루시안, 2005: 107-34).

제주방언이 심각한 위기의 언어가 될 수 있었던 내적인 요인 중 하나로서 외부 환경에 대한 제주방언 화자 집단의 '집단적 잠재의식'을 문제 삼아야 할 것 같다. 힘센 문화의 유입과 함께 들어온 힘센 언어에 쉽게 동화하려는 모방심리의 작용 결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제주방언 화자들에게 생태학적 사고 방식-생태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언어는 존재의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태의식이 있었다면 지금의 사정보다 나은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제주 방언을 보존해야 할 당위성은 분명해졌다. 앞으로 제주 방언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제주방언의 보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종래의 방언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의식이란 바로 생태학에서 말하는 '생태적 사고'를 말한다. 이 생태적 사고는 곧 제주방언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승시키지 못한 데 대한 우리들의 자아성찰, 반성이자 윤리적 책임의식이다.

즉, 우리 언어 안에 존재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주방언 유전자의 중요성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이 생태의식이다. 개인의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이 죽으면 함께 죽는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제주방언의 보존은 곧 제주방언 사용자인 주체-나 자신의 존재의의를 자각하는 일이며 역사성과 정체성 전승 작업이 될 일이다.

그렇다면 제주방언 보전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환경론자들은 멸종되어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온 힘을 쏟는다. 그것은 자연 보호가 바로 인간 보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언어 생태계 보호에는 관심이 그만 하지 못하다. 한국어라는 커다란 언어 생태계는 크고 작은 지역 언어 생태계의 집합체이다. 이 작은 생태계들은 각각의 언어학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존재해야 한다. 특정 지역 언어 생태계의 생태지위가 축소되어 소멸된다는 것은 생물계 생태계의 파괴 현상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국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 연속으로 이웃해 있는 생태계들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은 자연 환경 보호, 생태계 보호가 그 핵심 분야이다. 그러나 이 사업 어디에도 각 지역의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으며 심지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 방언의 언어 생태에 대한 보호 사업은 없다. 이것은 정부가 생태계, 자연 보호가 인간 보호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정책 제안자들의 생태의식의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자연 환경 보호와 동일하게 소멸 위기 단계에 와 있는 제주 방언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유네스코로부터 '보호해야 할 언어'로 인정을 받아서 가 아니라, 제주 방언이 가지는 국어사적 가치 외에 제주의 정신 문화재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 방언이기 때문이다. 즉 제주 방언의 보호는 해체되고 사라지는 제주민의 정신문화재들의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IV. 제주방언 보전을 위한 제안

유네스코로부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된 제주방언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일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누가할 것인가? 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민-관-학제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그런 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1. 방언 조사 및 연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실시

1970년 유네스코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 세계 102개 나라 482개 지역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보전, 둘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 셋째는 환경 교육, 연구 등의 차원이다. 제주방언 보전 프로그램도 생물권 보전 프로그램과 그리 다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주방언 보전 프로그램은 첫째 방언 자료를 조사하고, 둘째,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 -방언 문화 발굴, 전승 사업 수행, 셋째, 방언 교육 및 방언 연구로 분화시킨다.

방언 조사의 시급성은 지구상에서 소멸된 소수민족의 언어는 모두 기록물이 없다는 사실에서이다. 기록물이 없다는 것은 표기 수단이 없거나 있어도 기록물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방언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방언 자료를 채록해서 관리하는 일이다. 채록은 개인 생애사를 기록하는 방법,

멸종된 동식물의 어휘 조사, 기층문화와 관련된 방언 조사 등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방언 자료를 채록하는 한 편,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남겨 놓아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장래 제주 방언으로 이루어진 모든 제주 사람들의 문화를 종합하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 작업이다.

각 분야의 조사는 학문 간의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조사자의 전공, 관심 분야가 아닌 분야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조사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방언 연구자의 수는 전국 지역 방언 연구자 수에 비해서 매우 영세하다. 그 이유는 제주 방언의 큰 방언차로 인해서 다른 지역 출신 국어학자들이 제주방언을 이해하거나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제주 방언 연구는 주로 육지 각 대학에 분포되어 있는 제주 출신 국어학자들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주 토박이 연구자나 대학 교수 모두 합해서 10여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육지에 있는 연구자들은 주로 방언 자료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제주 현지에 있는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 등의 현장 연구로 특징 지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방언 전수자를 육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주 민속, 및 구비 문화 자료와 방언자료를 채록하고 보존,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다행히 2005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전국 지역어 조사 사업과 2007년부터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민족 기층생활어 조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고 연구비로써 제주 지역어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 조사 및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문화관광부 인정 기관인 제주대학 국어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총서로서 제주 사람들의 구술 발



화 채록한 자료를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  
는 조사 사업이 없다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  
해볼 일이다.

그 외 도내에 젊은 국어학, 언어학의 이론 연구자가 매우 빈약한  
현실도 개선, 보완해야 할 일이다. 자료 수집과 이론적인 연구를 겸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젊은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일은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를 대학 차  
원이든 제주도청의 교육 정책으로 '특성화'시켜서 젊은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이들의 연구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 2. 토착 방언 화자 발굴 및 보호와 육성 정책 실시

노년층의 토착 방언화자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들  
을 대상으로 한 방언 채록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한다.

건강한 화자라면 방언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을  
초중등학교에서의 방언 교육의 '방언 교사'로서의 활용 방법이다. 또  
한 이들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방언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토착 방언화자들을 육성하도록 한다.

이 방안은 호남의 '판소리'가 잘 보존된 이유 중의 하나로 판소리  
전수자들을 '판소리 전수관'이라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적극  
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서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는 '제주방언 학교, 또는 제주방언 전수  
관'이라는 교육기관을 각 지역에 설치하여 방언 화자들의 인구 저변  
확대를 기해야 한다. 제주 방언 전수관에서는 제주 조상들이 사용하

던 생활어, 민담, 설화, 속담, 민요, 노동요 등의 제주 방언 문화 전반에 걸친 구연자들을 육성하는 교육 내용으로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 3. 방언 교육의 강화

표준어와 방언은 서로 이중체계로서 존재한다. 젊은이들에게 표준어 중심의 단일 언어 교육에서 벗어나 표준어와 방언을 모국어로서 다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크게 1)교육 행정, 2)교육 현장 이 상호 협조 관계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 1) 교육 행정

초중등학교에서의 방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 정책이 시급하다.

앞에서 제시한 노년층의 방언화자를 1일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방법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세대차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문제, 교육의 전문성의 부족 등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과 노년층 자원봉사 방언 교사들이 돌아가신 후 그 기능을 이어 받을 국어과 교사들에게 방언 교육 연수 과정을 실시하는 방법과 임용 시 영어과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제주 방언 구사능력을 반영하는 방법도 적용해볼 만하다.

## 2) 교육 현장

국어시간 외에 음악 시간을 방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국어과의 방언 교육은 7차 교육 과정에서 각 지역과 언어에 대한 단원이 있으므로 이 단원을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수준별, 단계별로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제주도 전 지역이 공통 교재와 교안을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방언 교재에는 제주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역할극하기, 연극, 영화의 한 장면을 제주방언으로 바꿔보기, 제주 방언 자료 채록하기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해야 한다.

음악과는 사라진 제주 전래 동요, 민요들을 발굴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 방언으로 창작 동요도 만들어서 교육한다면 노래로 배운 제주 방언이 국어과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될 것이다.

## 4. 방언 문화 활성화: 제주방언 마을 운영

방언 문화란 방언으로 이루어진 모든 문화를 망라한다. 전통 구비 전승 문화 외에 방언으로 쓴 문학 작품들도 물론 해당된다.

방언으로 시연되는 민속 문화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진다. 즉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접해볼 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제주도에 있는 민속마을을 '제주방언 체험 마을'로 강화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면 제주 방언으로 의사소통과 모든 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방언 교육의 체험 학습장으로서 민속 마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 5. 지역 대중매체들의 방언에 관한 관심

제주 방언 보존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TV의 힘은 다른 대중매체의 최우선에 선다. 그러므로 지역의 TV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제주 문화와 제주 방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역 대중매체는 제주방언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 확립에 대한 논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말을 과잉 사용하는 일에 대한 재조명, 제주방언의 관광 상품화에 대한 여론 및 방법 조사 등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부터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 방언 알기, 그리고 방언 화자들의 발굴 및 소개 등과 앞서에 제안한 방안들의 내용을 제주도민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지역의 대중매체가 제주 방언 보존에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희, 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 \_\_\_\_\_, 2010, 「제주방언 혼성형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방언학』 10, 한국방언학회, 4-20.
- 강영봉 외, 2008, 『제주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권루시안, 2005(역), 『언어의 죽음(Language Death)』, David Crystal(2000), 이론과 실천.
- 김성희, 2006(역) 『생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을까?』, 브뤼노 파디·프레데릭 메다이(2006), 믿음IN.
- 김정화, 2006(역),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Vanishing Voices)』, Daniel Nettle, Suzanne Romaine(2000), 이제이북스.
- 박육현, 1999(역), 『생태언어학』, Alwin Fill(1993), 한국문화사.

Abstract

## The Ecolinguistic Importance of Studying Jeju Dialect

Kang, Jeong-Hui\*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o preserve the endangered Jeju dialect, and to examine the ecolinguistic importance of studying Jeju dialect.

Old forms of Jeju dialect are speedily decreasing recently. Jeju dialect was earmarked for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by UNESCO in Sept. 2010. What Jeju Government and people need have a mind to preserve the endangered Jeju dialect from now. It is necessary for Jeju Government and people to provide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Firstly, Jeju Government has to scout for fluent speakers of Jeju dialect and upbringing them. Secondly, Jeju Government must develop Jeju dialect education program both in school and family. Thirdly, the local mass media of communication has to be interested in Jeju dialect. Fourth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financially and academically dialectologists who study Jeju dialect.

**Key Words:** Ecolinguistic importance,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Policies, Dialect education program, dialectologists

---

\* Hannam University

교신: 강정희 360-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E-mail: kchee@eve.hannam.ac.kr)

논문투고일 2011. 8. 12.

수정완료일 2011. 8. 25.

게재확정일 2011. 8. 26.